



## 호스피스 전인의료에 있어서의 포괄적 평가

윤 옥 희 \_ 전주 엠마오사랑병원장, 본협회 전북지부장

**잘** 알고 있는 교수님께서 대동맥판 협착증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었다. 심장에 관한 수술이라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들도 수술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심사숙고 끝에 수술 할 병원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서울의 전문화된 대형병원이 아닌 중소도시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하셨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서울의 큰 병원 흉부외과 전문의는 심장수술 중에도 거의 판막 수술만이 전공이기 때문에 판막수술 외의 심장질환은 거의 관여를 하지 않는 반면에 선택한 병원의 흉부외과는 심장 판막 수술 전문이지만 심장 전체의 상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찰하고 설명하며 수술시 함께 대처할 자세를 가지고 질병 치료에 임한다는 것이다. 만일 수술이 잘되어 판막이상은 고쳤다 해도 심장의 다른 부분 (예를 들면 관상동맥)질환 등으로 심장기능이 멈추어 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살아있는 유기체에서는 질병뿐만 아니라 기능을 함께 생각하는 포괄적 평가와 포괄적 치유가 중요하다.

전인의료에 있어서의 포괄적 평가란 사회 신체 정신 영역 분야에 있어서 질병과 기능을 함께 살피는 거다.

먼저 사회적 병리 상태와 기능은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가정의 기능과 구성원을 가계도를 통하여 파악하고 또한 그 가정이 가족 생활사 측면에서 어느 시기에 있는지를 보고 가정적 병리적 현상은 없는지 그로 인한 가족 기능의 저하는 어떤 것인지 살피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신체적 기능평가는 주로 감각기능 운동기능 인지 기능 일상생활 동작 등으로 구분하여 보는데 자세한 평가도구를 적용할 것인가는 하지기능 검사항목 즉 일어나 10m정도 걸어간 후 뒤돌아 와 제자리에 앉기를 시행 하도록하여 약 10초 이내에 가능한 지를 보는 것이다. 이를 시행해 보면 그 검사 대상자의 신체 기능을 상당량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지기능 평가와 심리기능 평가가 있는데 단기 기억 장애와 우울증 유무에 대한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면 된다. 단기 기억장애는 3가지 물체 이름을 암기 시킨 후 약 1분 정도 후에 기억하여 다시 말하도록 하는 것이고, 우울증에 대한 검사는 슬프고 외로운 생각이 드는가를 묻는 것이 기본이다. 그 후 필요하면 우울증 척도 검사를 항목별로 시행하면 된다.

다음으로 심리기능 평가에 들어가면 된다. 우리 인간은 심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일에 당면했을 때 공통적으로 겪는 심리 반응이 있다. 사람에게 가장 수용하기 힘든 일이 죽음이고 따라서 죽음에 임박한 시한부 말기 암환자들이 비슷하게 겪는 심리과정인 퀴블러르스의 5단계(거부, 분노, 타협, 우울, 수용)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인생전체로 볼 때 40대부터 약 10년 증가시마다 각 단계를 거친다고 봐도 무리는 없는 듯하다. 이 단계를 지난 시간도 없는 말기 환자는 혼돈 상태를 겪기도 한다.

가장 핵심인 영성의 평가는 인간의 영적 요구 발현과 충족 여부를 살펴 보는게 좋겠다. 다음 4가지 항목이 그에 해당된다.

- 1) 삶의 의미 추구에 대한 요구
- 2) 인정받음에 대한 요구(사랑과 관심)
- 3)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에 대한요구(즉 용서와 화해에 대한 요구)
- 4) 영속성에 대한 추구(즉 희망과 확신에 대한 요구)

누구나 이러한 영적 요구를 갖게 되는 말기암 환자는 통증과 그 밖의 증상들로 방해를 받는다. 영적 요구 발현과 충족을 위해서는 방해요인에 대한 파악과 적절한 대처 그리고 기능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전인의료와 토털케어에 있어 질병과 기능에 대한 포괄적 평가는 호스피스 실무책임자 뿐 아니라 팀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개념이고 구체적으로 습득되어야 할 과정 중 하나라고 본다.